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준비 시동

“50개국 참여·관람객 100만명 유치”

광주시가 국제적인 환경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2시 시청에서 ‘2011 광주세계환경엑스포’ 태스크포스(TF)팀의 첫 회의를 갖고 엑스포 행사계획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지난 9월 박광대 시장이 ‘광주세계환경엑스포’ 개최 계획을 발표한 뒤 지역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24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엑스포 추진기획단이 발족할 때까지 국내·외 엑스포 관련 자료 조사와 부문별 행사 방향 설정,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세부행사 프로그램 발굴 등을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내일 TF팀 첫 회의의 행사 방향·추진 전략 마련

2011년 10월 한달간 DJ센터 등서 각종 행사

인 행사 방향 설정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광주세계환경엑스포’는 2011년 10월 한 달동안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산림청과 공동 추진 중인 수목원 등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주제별 전시와 국제학술포럼, 환경산업 전시회 및 투자유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자연생태 탐방과 환경기초시설 투어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 행사에 50개 국 이상의 참

여와 관람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내년 1월 타당성 용역연구를 발주해 행사의 당위성과 다른 박람회와 차별성, 경제적 효과, 시민효용도 등 성공적인 개최 방안 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를 통해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 정부의 승인이 나면 추진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국비 150억원과 시비 200억원 등 모두 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2005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도시환경협약에 국내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4월 10일에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 탄소은행제도 시행, 1천만그루 나무심기, 에코-폐기물에너지타운 조성 등 친환경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현주 시 환경녹지국장은 “환경엑스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산업, 폐기물 자원화, 친환경 건축자재 등 녹색기술 및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올 충장축제 경제효과 131억원

방문객 10명 중 8명 광주시민...관광객 유치는 실패

동구 평가보고회

올해 충장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5년 전 첫회 때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축제 방문객 10명 중 8명 이상이 광주시민이었으며, 외부 관광객 대부분은 당일치기 관광을 하고 떠난 것으로 조사돼 관광객 유치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동구(청장 유태명)는 10일 오후 4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회 충장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토론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9일 동구청이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 정강환 교수팀에 의뢰해 제5회 충장축제(10월7일~12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충장축제의 지역경제 생산 파급효과는 131억원으로, 1회 때(7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외부 관광객 중에서도 전남도민(6.3%)을 제외한 타 시도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이 47억6

천만원으로 가장 큰 파급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음으로는 ‘소매업’ 35억1천만원, ‘문화·오락서비스업’ 24억2천만원, ‘도로여객운송업’ 14억, ‘숙박업’ 10억2천만원 순이었다.

또 충장축제 방문객들의 1인당 소비지출액은 5만3천300원으로 지난해(6만3천300원)보다 줄어 들었다. 세부적으로는 ▲식·음료비 1만8천400원 ▲쇼핑비 1만4천400원 ▲교통비 8천700원 ▲유희비 7천700원 ▲숙박비 3천900원 등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축제에서 관광객 유치 부문에서는 ‘낙점’을, 행사 만족도 부문에서는 ‘합격’을 받았다.

전체 방문객 지역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방문객의 84.6%가 광주시민이었으며, 외부 관광객은 14.6%였다.

특히 외부 관광객 중에서도 전남도민(6.3%)을 제외한 타 시도 관광객은 8.3%에 불과해 ‘함평나

비축제(외부 관광객 비율 93.5%)와 ‘청도소싸움축제(78.9%)’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전남을 제외한 외국 관광객 수는 서울→대구·천안→울산·경주→인천·수원·군산 등의 순이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7점(매우 그렇다)부터 1점(전혀 아니다)로 축제 만족도를 평가한 부문 중 ‘행사내용이 재미있었다’라는 질문에 전체 대상자의 73.8%가 4점 이상을 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내용이 다양하다’라는 질문에도 86%가 4점 이상을 줘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교수는 종합평가서에서 “충장축제가 단시간에 대규모 도심거리형 축제로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억’이라는 주제의 반영률을 높이고 상실 전시관 등 중·장기적인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김대중컨벤션센터

한독상공회의소와

전시회 업무협약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9일 한독상공회의소와 협력 및 관계 증진을 위한 전시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내년 3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인 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각종 전시회에 독일 업체와 바이어 유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 기업들은 현재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1981년 창립 이래 한국과 독일의 경제관계를 증진·발전시켜온 한독상공회의소는 산업 전반에 걸쳐 35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



남구 그린시티 선포

9일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구 그린시티 선포식’ 행사에서 주민 등 500여명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9월 환경부로부터 그린시티로 지정된 남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북구, 자연 재난 대비 대통령상 서구, 규제개혁 추진

광주시 북구는 전국 246개 자치단체 및 전국 재난관련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소방방재청 주관 중앙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전국의 재난 관련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대상기관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과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도로 재설계 준비실태, 예경보 시스템운영실태 등 14개 분야 71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내 집 앞 내 내가 치우기 운동’ ‘버스승강장 및 재해 취약 이면 도로 방재단 운영’ 등을 특수시책으로 삼고 꾸준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서구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된 ‘섬김이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등 33개 기관 등이 선정된 이번 평가에서 서구는 기업활동 장애규제를 집중 정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 북암담어리 규제 발굴·개선,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365일 연중무휴 행정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365일 민원봉사실’을 개소하고 365일 24시간 비즈니스 포털시스템을 구축, 법무·세무·부동산 등 전문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상식은 12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It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We will help you get rid of hearing loss). It lists two phone numbers: 1082-227-9940 and 1082-227-9970.

Large advertisement for '호박 나이트' (Pumpkin Night) event. It features a photo of a man and text: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The lid opens, the best night in Korea), '광주첨단 3,000명' (Gwangju Advanced 3,000 people), '호박 나이트' (Pumpkin Night), '광주첨단 · 폭스존열' (Gwangju Advanced · Foxzone), '12월 11(목) 12(금) 설운도' (December 11 (Thu) 12 (Fri) Seolwondo), 'OPEN 등' (OPEN etc.), '부킹전국 365일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뿔이 보이는 꿈에 그리던 나이트가 첨단상륙!!' (Booking nationwide 365 days, a dream of snow falling from the sky and horns appearing, the long-awaited night is landing on advanced technology!!).